

예배순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중추절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목 상 기 도 시편 50:14~15 다 같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찬 송 563장 다 같 이

1. 예수 사랑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악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 아멘

대 표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룬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3:1~7 말 은 이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설 교 말 은 이

제목 :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교회만큼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요13:34)", "원수를 사랑하며 (마 5:44)" 라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며,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교회에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곳이 고린도교회입니다. 너도 나도 은사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은사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과 한 가지만 받은 사람 등, 구별이 생기면서 경쟁과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과리처럼 그저 소음에 불과 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몸을 불사르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보다 참고 끝임없이 견디며 기다리는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사랑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에 실천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 문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상의 은덕에 감사드리는데는 크리스찬에게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야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
리로부터 어긋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2023년

초록

가정예배

“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 106:1)

대한예수교 황금교회
장로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0길 89

Tel. 768-1950, 1953 / Fax. 768-1951